

이미 오래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모세는 구약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세의 예언적 권위를 통해 기록된, 모세 오경을 대하고 있다.⁴¹⁾ 우리가 모세의 예언자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 모세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경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경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미리암이 받았던 벌과 똑 같은 벌을 받게 된다. 물론 신체적으로 문둥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문둥병자가 당하는 것과 똑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또한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와의 교제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무서운 벌로서 내용상 출교와 같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자는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⁴²⁾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모세의 글에 호소하셨는데(막 12:26) 그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구원은 없다. 그가 회개하기까지는 결코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의 직분적 권위를 높이셨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41) Cf. S. David Sperling, Miriam, Aaron and Moses Sibling Rivalry, *Hebrew Union College Annual* 70-71, 1999-2000, 45: 이 논문은 모세가 한 예언이 오경(토라)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기는 페르시아 아케메니드 시대라고 본다.

42) Milgrom은 미리암의 '문둥병'은 피부가 회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영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예로 나아만 장군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왕하 5:1, 27). Milgrom, op.cit., 98. 그런데 아람에도 그런 제도와 규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본문은 미리암이 진영밖에 머물렀다고 언급한 것이다(민 12:15). 미리암이 병에 걸린 기간이 칠 일로 줄어들고 칠 일간 진 밖에서 머문 것은 그 죄가 칠백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선지자 모세의 중보 때문이다.

역사신학

칼빈과 디아코니아

Calvin and Diaconia

이신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 126
2. 가난과 부에 대한 견해 * 127
 - 2.1. 중세교회의 견해에 대한 비판 * 127
 - 2.2. 가난과 부의 문제 해결: 성도의 교제 * 130
 - 2.3. 형평성(equity) * 133
3. 구호활동(almsgiving)에 대한 교리적 이해 * 136
4. 집사직(office of deacon) * 139
 - 4.1. 집사의 정의 * 139
 - 4.2. 집사의 자격 * 142
 - 4.3. 집사의 종류와 기능 * 143
5. 제네바의 구호활동 * 147
 - 5.1. 구빈원 * 147
 - 5.2. 프랑스 기금: 부르스 프랑웨이즈(Bourse francaise) * 149
6. 나가는 말 * 153

칼빈과 디아코니아

본 논문은 칼빈의 디아코니아 개념에 관한 것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가난과 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 견해에 대한 중세 교회의 잘못된 이를 기독교론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은 이에 대한 실제적 해결책으로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형평성의 개념을 주장한다. 칼빈은 구체적 구호활동을 위해서 이에 대한 교리적 이해를 추구하였는데 그 핵심은 성화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기 부정에 놓여 있었다. 또한 이러한 디아코니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직분으로서 집사직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사실상 이중적 집사직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들을 실제로 돌보는 오스피탈러와 이러한 업무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서무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칼빈은 이러한 이중직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이 구호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집사직은 당시 제네바의 구빈원의 활동에 잘 적용되어 나타났다. 비록 칼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활동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프랑스 기금, 즉 부르스 프랑세아즈(Bourse française)에 해당된다. 이는 가난한 프랑스 피난민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이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프랑스에 서적행상인들을 파송하여 성경, 교리문답서, 그리고 시편 찬송가 등을 보급하는 선교적 활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주요어

디아코니아, 가난과 부, 성도의 교제, 형평성, 이중적 집사직, 프랑스 기금

Calvin and Diakonia

Abstract

Calvin and Diakonia

Prof. Dr. Samuel Lee

This article focuses on Calvin's concept of diakonia. In order to effectively explain this concept, attention was directed to Calvin's understanding of wealth and poverty because diakonia cannot be fully illuminated without these two concepts. Calvin argues that the Medieval church had misunderstood them from two perspectives: christological and ecclesiological. A practical solution to this misconception could be seen in communion of the saints along with suggestion for the concept of equity. In order to fully implement the idea of diakonia, it was crucial for Calvin to secure its doctrinal basis. Self-denial(mortificatio) as a means of sanctification and repentance was believed to be essential for a believer's almsgiving. Furthermore, Calvin advocated a two-fold function of deacon in the church. Procurators are the deacons in charge of administrating and managing activities for diakonia while hospitalers are the deacons actually involved with the work of helping the needy. Calvin's understanding of diakonia was fully implemented in two Genevan programs. First, it was the general hospital caring the sick as well as providing the necessary help for them. Second, Bourse francaise was the French fund helping the French refugees in Geneva. It was a specific fund designed to help people in need

until the point of time in which they could support themselves. I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work of sending colporteurs back to France so that they could distribute Bibles, catechisms and psalters to Protestants still remaining in France.

Keywords

diakonia, wealth and poverty, communion of the saints, equity, dual office of deacons, *Bourse francaise*

1.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룩한 업적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오늘날 유럽과 전 세계에서 계속된다. 제네바에서 그의 영향력이 대단하였지만 칼빈은 타국에서 항상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어떤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는 제네바에 정착한 수 많은 피난민들 중의 한 명에 지나지 아니하였다.¹⁾ 그는 언젠가 조국 프랑스가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네바에서 살아왔던 피난민이자 목회자이었다. 이러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칼빈은 이 도시로 몰려드는 피난민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목회자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들의 세속적 삶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지도자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디아코니아(diakonia), 즉 구호활동은 그의 신학과 목회가 제네바에 제대로 구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측정계(barometer)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칼빈이 가졌던 디아코니아에 대한 관심을 신학적 측면에서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그의 견해가 어떻게 실제로 구호활동으로 이어졌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난과 부에 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본 후에 그가 구호활동과 집사직에 대하여 어떤 교리적 견해를 지녔는가를 살펴보고자

* 이신열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화학과(B.A.), 펜실베이니아 비블리칼 신학대학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Div.)을 졸업한 후, 네덜란드 Apeldoorn 기독교개혁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Doctrandus) 학위를 받고 동교에서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의 은혜와 능력개념 연구, 2002)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를 거쳐,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순례자로서의 칼빈의 삶을 조명한 전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Herman J. Selderhuis, *John Calvin: A Pilgrim's Life* (Downers Grove: IVP, 2009).

한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구호활동이 어떻게 제네바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가난과 부에 대한 견해

2.1. 중세교회의 견해에 대한 비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중세 교회의 가난과 부에 대한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지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배분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는 교회가 지닌 재산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칙이었다고 주장한다.²⁾ 그러나 욕심과 잘못된 경영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무너져 내리게 되자 교회는 법령(canons)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교회법령에 의하면 교회의 수입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성직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 셋째, 교회와 부속 건물의 수리를 위한 몫, 넷째, 외국인과 내국인을 막론하고 가난한 방문객들에 대비하여 배정된 몫이었다."³⁾ 이러한 법령 제정을 통하여 초대교회와 성직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심지어 틀루즈의 주교이었던 엑수페리우스(Exuperius)는 성찬의 떡을 버드나무 잎으로 엮은 광주리에, 성찬의 포도주를 유리병을 넣어 다니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굶는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였다고 제롬(Jerome)은 전한다.⁴⁾

2) 『기독교강요』, IV.4.7.

3) 『기독교강요』, IV.4.7.

그러나 중세교회에 이르러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단지 혼란해 졌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말살되고 또 소멸되고 말았다”⁵⁾고 칼빈은 비판한다. 이는 중세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집사직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주교와 감독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의 대부분을 가로채어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망각해 버린 것이었다.⁶⁾ 그는 계속해서 교회 건물의 수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도 “필요할 때에는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⁷⁾고 주장했다. 칼빈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집사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중세교회가 지닌 가난과 부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의 이유를 단순히 잘못된 윤리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태도는 사실상 잘못된 교리(doctrine)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잘못된 교리란 기독교론, 그리고 교회론과 관계된 것이다.

첫째, 잘못된 기독교론에 관한 것이다. 중세 교회는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천상적 왕국을 이 땅에 현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칼빈은 이러한 기독교론적 사고를 어처구니없고 비합리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을 육적 또는 세속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한다.⁸⁾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가장 낮아

지셔서 인간의 육체를 덧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삶은 가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가난 가운데 임하신 왕이었다.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부요함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는 가난으로 자신이 영적 왕되심을 증거하였다. 칼빈은 이 사실을 스가랴 9:9에 기록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나라”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가 나귀를 탔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귀는 가난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선지자가 ‘נִיב’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 분명하다. 선지자는 그 왕이 세상의 왕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가장 천하고 낮은 백성과 구별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⁹⁾

둘째, 잘못된 교회론에 관한 것이다.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적 왕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보다는 교회가 이 왕국이 지닌 영광을 세속적 차원에서 드러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의 존엄성이 외형적 웅장함과 화려함에 의해 훌륭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형태

4) 『기독교강요』, IV,4,8.

5) 『기독교강요』, IV,5,16.

6) 『기독교강요』, IV,4,7.

7) 『기독교강요』, IV,5,16.

8) 『기독교강요』, IV,5,17.

9) CO 44, 272 (속 9:9 주석): “Quidam existimant his asinum poni non ad notandam paupertatem, quia soliti tunc fuerint equitare in asinis, etiam qui praestabant virtute in populo. Sed mihi non dubium est, quin propheta hoc membrum conjunctim addidit ad nomen נִיב : quasi diceret regem de quo loquitur non fore magnifico et splendido apparatu insignem, ut solent esse tereni principes: sed quasi sordido habitu, aut saltem vulgari, ut nihil differat a plebeio quopiam et ignobili.”

10) 『기독교강요』, IV,5,17.

가 항상 외형적인 위용과 눈에 드러나는 위계질서(hierarchy)를 지녀야 한다는 잘못된 가시적(visible) 교회론에 근거한 것이다. 칼빈은 교회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설명하면서 겉치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세교회의 모습으로서 철저히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그 모습을 외형적으로 드러낸다고 믿었다. 따라서 칼빈이 이해한 가시적 교회란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양육되고 다스려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형적 형태에서 비롯되는 웅장함과 화려함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표지(sign)로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집행만을 언급한다.¹¹⁾

2.2. 가난과 부의 문제 해결: 성도의 교제

이런 이유를 근거로 칼빈은 중세교회가 가난과 부에 관하여 잘못 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가난과 부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이 '성도의 교제'(communion of the saints)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전에 가능했던 완전한 교제로부터 이제 단절되었음을 뜻한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으며 그 결과 자신에만 집중하는 이기적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신에게 얽매이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¹²⁾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

로 자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욕심,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착취,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타락한 상태로부터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 줄 아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포함한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타인들과의 교제도 회복되는 모습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용어의 핵심이 발견된다. 존 맥닐(John McNeill)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칼빈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교회의 실재성을 잘 표현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들을 서로 나누기 때문이다. 이 교제와 교통의 사상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칼빈은 이 영적인 가치들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어떠한 개인적 경건도 용납하기 않는다."¹³⁾ 칼빈은 이러한 상호 교제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유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청지기(steward)라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는데 칼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1) 『기독교강요』, IV.1.9.

12)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26.

13) 존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0), 244.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유익한 혜택들은 무엇이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낌없이,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데 있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상 더 확실한 규범은 없으며 또 그것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유력한 권면은 없다(벧전 4:10).¹⁴⁾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올바르게 전제될 때 비로소 사랑의 원칙(the law of charity)에 근거하여 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랑의 원칙이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마 22:37-40).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자아 중심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의 교제와 상호 교통을 통하여 부자가 가난한 자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교제의 확실한 띠로 사람들을 연합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직분을 통해서 상호 교통해야

14) 『기독교강요』, III, 7.5.

15) 『기독교강요』, III, 7.5.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¹⁶⁾

앙드레 비엘러(Andre Bieler)는 사랑의 원칙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부와 가난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부의 순환에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사심없는 선물이 전달될 것을 유발시킨다. ...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경제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소유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지 않게 되고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¹⁷⁾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바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칼빈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2.3. 형평성(equity)

성도의 교제를 통한 가난과 부의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형평성’(equity)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¹⁸⁾ 칼빈의 가르침이 칼빈 이전의 시대와 동시대 인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

16) CO 40, 429 (겔 18:7 주석): "Sed quia Deus homines quodam societate vinculo inter se coniunxit, ideo necesse est communicari inter ipsos officia. Hic ergo exigitur, ut qui dives est, pauperi succurrat, et porrigat panem suum famelico."

17)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59.

18) Guenther H. Haas, *The Concept of Equity in Calvin's Ethics* (Waterloo: Wilfried Laurier Univ. Press, 1992).

지는 그가 경제적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를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에 근거하여 고찰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가난과 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법의 요구와 정당성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에 있어서 프랑스 인문주의자이며 법률가인 기욤 부데(Guillaume Bude)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법은 완전하고 확고한 정당성을 요구하며 형평성은 법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는다.”¹⁹⁾ 칼빈에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과 방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궁극적 법에 의해 종속되고 판단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평성의 원칙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본성 속에 형평성의 원칙을 새겨 두셨다. 그래서 과도한 사리사욕 때문에 이 원칙을 외면하는 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누구에게 물어도 그들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막상 제 자신이 그런 일에 처하게 될 때, 편견된 자기 사랑 때문에 눈이 멀고 암흑에 휩싸여서 그들은 반대의 길로 이끌려 간다.²⁰⁾

19) F. L. Battles & A. M. Hugo (eds.), *Calvin'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Leiden: E. J. Brill, 1969), 271.

20) CO 23, 401-402 (창 29:14 주석): “Et Deus aequitatis iudicium inculpavit hominum naturae, ut prorsus excusatione careant quicumque immodico privati commodi studio ab ea regula declinant. ... Notabile certe exemplum: nam raro in generalibus principis errant homines, ideo fatentur uno ore ius suum cuique reddendum, Simul autem atque ad propria negotia descendunt, excaecat eos preverus sui amor vel saltem tales nebulas obducit ut in contrariam partem ferantur. Quare discamus fraenum nobis inicere ne propria utilitas ad opprimendam iustitiam praevaleat.”

그렇다면 ‘형평성’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이를 간단히 ‘영속적인 사랑의 법칙’이라고 정의한다: “... 모든 국가는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이러한 법을 제정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은 반드시 영속적인 사랑의 법칙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법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지니게 된다.”²¹⁾ 영속적인 사랑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며 또 한 모든 자연법과 사회법이 근거를 삼는 법칙에 해당된다.²²⁾ 형평성은 율법을 통해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인간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구현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가난과 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형평성은 부유한 자들이 도덕법과 사랑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는 데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놓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그의 이웃이라고 설명하셨다(눅 10:29-37). 칼빈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설하면서 율법사는 자기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위반자’(legis transgressor)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²³⁾ 율법의 위반자란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위반한 자를 가리

21) 『기독교강요』, IV, 20, 15.

22) William Klempa, "Calvin and Natural Law," in *Calvin Studies IV*, presented at a Colloquium on Calvin Studies at Davidson College, ed. John H. Leith & W. Stacey Johnson (Davidson, NC: Davidson College Presbyterian Church, 1988), 14; David Little, "Calvin and the Prospects for a Christian Theory of Natural Law," in *Norm and Context in Christian Ethics*, ed. Gene H. Outka & Paul Ramse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8), 177.

23) CO 45, 613 (눅 10:29 주석): “Quum ergo intelligat examen caritatis sibi fore adversum latebras captat in nomine proximi, ne appareat legis transgressor.”

키는데 이는 “형평성만이 모든 법의 목적이며 규범이며 한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²⁴⁾는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이 율법사는 분명히 형평성의 원칙을 무시한 ‘형평성의 위반자’(aequitatis transgressor) 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구호활동(almsgiving)에 대한 교리적 이해

앞서 언급된 청지기에 관한 칼빈의 이해는 구호활동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첫 열매들을 가져와서 주님께 헌정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들을 자기에게 바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롬 22:29; 23:19).²⁵⁾ 그러나 이로 인해 하나님을 부요하게 해드릴 수 없으므로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를 실천해야 한다(시 16:2-3)”고 칼빈은 주장한다.²⁶⁾ 이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호활동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뜻한다.

칼빈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구호활동에 임하게 될 때 성화(sanctification) 또는 회개(repentance)의 한 방편으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mortificatio)이 비로소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가르친다.²⁷⁾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

24) 『기독교강요』, IV.20.16.

25) 『기독교강요』, III.7.5.

26) 『기독교강요』, III.7.5.

27) 『기독교강요』, III.7.7; 로날드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85-87.

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웃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한 가지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상당히 가혹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자기만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재산을 내어 놓은 것은 쉽지 않다.²⁸⁾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을 위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양보하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령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는 교만에서 비롯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겸손과 친절로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된다.²⁹⁾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누어 주는 삶이 가능해진다. 자신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고전 4:7) 참된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돕는 참된 청기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칼빈은 설명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우리의 청지기 직책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뿐 아니라 올바

28) 『기독교강요』, III.7.5.

29) 『기독교강요』, III.7.4.

른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은 사랑을 표준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한 열심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시하게 될 것이다.³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고 사악한 행위로 우리를 격분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를 그쳐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³¹⁾ 이는 우리의 구호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으로 지음 받은 자들임을 상기시킨다. 즉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악행을 선행으로 갚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선행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지 못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공궤는 자연법에 의해 마땅한 것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상호 간에 가져야 하는 자연법에 의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이다.³²⁾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을 특별히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다, 더욱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 자체는 중세교회가 주장한 것처럼 결코 구원을 위한 공로(merit)가 될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성도의 선행과 입양(adoptio)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0) 『기독교강요』, III.7.5.

31) 『기독교강요』, III.7.6.

32) 『기독교강요』, III.7.7;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197.

우리는 우리의 친절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우리가 거저 받은 입양에 대한 증거이며, 보증이며, 날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사랑을 반대하는 육신의 천한 감정을 고쳐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란 자기들의 겸손과 사랑 가운데 자신에게 나아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신다.³³⁾

구호활동을 포함한 선행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칼빈은 인간의 선행이 자연법에 근거한 활동이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가 무례없이 구제하는 자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⁴⁾ 즉 성령의 능력 없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사랑에 저항하는 육신의 천한 감정이 고쳐질 수 있다.³⁵⁾

4. 집사직(office of deacon)

4.1. 집사의 정의

칼빈은 중세교회가 집사직을 하나의 직무로 파악하지 않고 단

33) CO 45, 189 (마 5:45 주석): "In summa, hanc nostrae adoptionis notame fore Christus testatur, si malis etriam et indignis sumus beneficentia nostra Dei filios, sed quia idem spiritus (qui gratuita nostrae adoptionis testis est, artha et sigillum) pravos carnis affectus, qui caritati repugnant, corrigit, ab effectu probat Christus, non alios esse Dei filios, nisi qui ipsum mansuetudine et clementia referunt."

34) 『기독교강요』, III.7.7.

35) CO 45, 189 (마 5:45 주석)

지 성직을 향한 단계로 보았다고 비판한다.³⁶⁾ 즉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제도를 최악의 상태로 부패시켜 집사를 평신도와 사제 사이의 중간단계로 변질시켰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집사직의 성격은 사도적의 성격과 다르지 않았다.³⁷⁾ 집사는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과 교회의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적당한 용도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집사(hypodinus)란 집사에 종속되어 그를 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이었다.³⁸⁾ 중세에 이르러 부집사는 부제(subdeacon)로 알려지게 되었다. 교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총집사에게 일임되었으나 부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대신에 사제를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배 시에 성경을 대독하고, 성찬에 잔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칼빈은 이를 "옛 제도를 무의미하게 흥내 내는 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³⁹⁾ 이러한 집사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구호금이 쓸모없이 낭비된다고 보았다. 즉 잘못된 집사직으로 인해 교회를 조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칼빈이 이해한 집사란 무엇인가? 집사는 단순히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맡는데 이 일은 공적 사역(public ministry)이며 교회의 영적 정부(spiritual government)의 직무에 해당된다. 칼빈은 이를 1555년에 행한 『디모테전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헌금을 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산을 감독하도록 선출된 모든 사람들은 공적 직분에 속할 뿐 아니라

36) 『기독교강요』, IV.5.15.

37) 『기독교강요』, IV.4.5.

38) 『기독교강요』, IV.4.5.

39) 『기독교강요』, IV.5.15

또한 교회의 영적 정부에 속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된 희생제물을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광스러운 직분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므로 위대한 주인에게 자신의 일을 고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조심해서 생활해야 할 적당한 이유가 있다.⁴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거룩한 일이며⁴¹⁾ 그들의 직무는 그 자체로서 총체적 기독교 사역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⁴²⁾ 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집사들의 사역이 말씀 사역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역임을 뜻한다. 물론 구호활동이 말씀사역에 부차적이지만 이는 설교와 똑 같이 거룩한 사역이다.⁴³⁾ 이런 이유에서 집사들은 칼빈의 글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언급된다.⁴⁴⁾ 그러나 집사는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이다.⁴⁵⁾ 이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평신도 직분자에 해당된다. 집사는 평신도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룩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가 선출되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인수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안수하는 일은 율법 아래서 성직을 부여하는 엄숙한 상징이었다. 이제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인수한 것은 그들로

40) CO 53, 292.

41) CO 48, 120 (사도행전 6:2 주석): "Scimus quam sancta res sit pauperum curam gerere,"

42) CO 53, 290.

43) Elsie A. McKee,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Librairie Droz, 1984), 154.

44) Ibid., 182. CO 53, 289-290, 291, 295, 303, 304.

45) CO 53, 289. 칼빈은 집사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청지기로 부르기도 한다. 『기독교강요』, IV.4.5.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의식 자체는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기도가 부가되었는데 이로써 성도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성직자들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었다.⁴⁶⁾

따라서 집사의 선출에 있어서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의 선출 시에 행해지는 것과 유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4.2 집사의 자격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집사들을 선출하는 것은 교회에 허용된 일이었다.⁴⁷⁾ 교회는 사도들의 천거에 의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집사로 선출하여 세웠다. 성령의 은사를 공급받을 뿐 아니라 확실히 지혜를 구비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일에 적합한 집사의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다음의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즉 성도들에게는 원칙이 주어졌는데 이 원칙은 그들이 누구든지 적당한 사람만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적은 많은 손해를 끼쳐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 누가가 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리는 표현을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만이 아니요, 또한 확실히 지혜를 구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그 직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나 집사의 자격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적절한 설명은 칼빈의 『디모데전서 설교』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집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줄 뿐 아니라 궁핍한 자를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먼저 사도 바울은 집사들이 진지하고 착실한 사람이기를 원했으며 다음에는 수다장이가 아니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자이기를 원했으며 ... 간단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집사들이 경솔하지 않으며 방탕하지 않으며 좋은 본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⁴⁹⁾

그리고 칼빈은 계속해서 집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virtue)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그는 표리가 부동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진심어린 동정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는 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선적이거나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이들을 경멸하지 않는 자라야

46) CO 48, 122 (행 6:3 주석): "Impositio manum solemne consecrationis symbolum erat sub lege. In hunc finem nunc apostoli manus diaconis imponunt, ut se offerri Deo agnoscant. Quia tamen inanis per se esset caeremonia, simul additur precatio, qua fideles Deo commendant quos illi ministros offerunt."

47) CO 48, 120 (행 6:3 주석).

48) CO 48, 121 (행 6:3 주석): "Interea hoc notare operae pretium est, legem imponi fidelibus, ne quem nisi idoneum praeficiant. Doe enim non levem iniuriam facimus, si fortuito quoslibet accipimus qui domum eius gubement. ... Quid dicit Lucas, plenos spiritu et sapientia, sic interpretor: requiri ut instructi sint quum aliis spiritus gratiis, tum vero prudentia, sine qua probe exerceri munus illud non potest ..."

49) CO 53, 294.

한다. 둘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술에 인박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음식과 다른 재물들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자선 구호금의 관리를 맡게 된다면 구호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인색하고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량에 맡겨진 재물을 정당하게 나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⁵⁰⁾

4.3. 집사의 종류와 기능

제네바 교회는 칼빈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로버트 킹던(Robert Kingdon)은 제네바 교회는 구호활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이는 평신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설명한다.⁵¹⁾

칼빈은 『교회조례』(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에서 교회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jus divinum)이라고 불렀다. 중세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은 질이 저하되고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단순히 사제직으로 나아가는 발판 정도로 간주되었다.⁵²⁾ 집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사제를 보좌하여 성만찬에 잔을 내어주고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등 그 외의 하찮고 의미없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었다.⁵³⁾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의 중

교개혁자 마틴 부서(Martin Bucer)는 칼빈의 집사 직분 이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부서는 집사의 직분이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보았다.⁵⁴⁾ 부서의 영향 아래 칼빈은 집사의 직분을 앞서 언급된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기 위한 직분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앙드레 비엘러는 이러한 칼빈의 집사 직분 이해를 재화의 상호교환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칼빈은 모든 지체간의 재화의 상호 교류라는 독특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사직을 새로 만들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칼빈은 돈이 영적 삶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오게 했다. 칼빈은 경제적 재화에 그 존재 이유를 되찾아 주었고, 경제가 이 땅위에서 해야 할 봉사의 사명을 부과했다. 집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영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경제적 재화가 교회의 모든 지체가운데 골고루 흐르도록 재확립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모두 서로 영적인 삶과 물질적 조건 그리고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궁핍한 자에게 행해야 할 봉사와 복음증거를 외국에 있는 지체들에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⁵⁵⁾

다시 집사는 두 종류로 나뉘어졌는데 첫째, 가난한 자들의 구호를 위해서 기금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집사와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을 돌보는 집사에 해당된다.

50) CO 53, 294.

51) Robert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in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1971): 50-69, 특히 68-69.

52) 로날드 윌레스,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97.

53) 『기독교강요』, IV.15.5.

54) Martin Bucer, *Common Places of Martin Bucer*, ed. David F. Wright (Abingdon: Sutton Courtenay Press, 1972), 254.

55)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칼빈의 경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4.

이러한 이중 직분에 대한 개념은 칼빈에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 이중 직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두 종류가 언급되어 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핍을 배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바울이 교회의 공적 직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두 가지 구별되는 종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구결의 전반부에서는 구호활동을 관리하는 집사를 가리키고, 후반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의 시중에 진념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하였던 과부는 후자에 속한다(딤후 5:9-10).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것 외에는, 공적인 직무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 된다. 한 종류의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관리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며, 다른 종류의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를 섬기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⁵⁶⁾

이러한 이중적 집사 직분은 실제로 그 당시 제네바에서 운영되었던 구빈원에 적용되었다. 실제로 구빈원은 시의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마땅하지만 교회가 사회에 구호활동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교회에 속한 집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6) 『기독교강요』, IV.3.9.

구빈원에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었는데 ‘서무관들’(procurators)과 ‘오스피탈레’(hospitaller)가 이에 해당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칼빈이 『교회조례』에서 서무관과 오스피탈레 양자 모두를 집사로 불렀다는 사실이다.⁵⁷⁾ 당시에 여자를 집사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구빈원에서 과부들이 포함된 ‘오스피탈레’를 집사로 불렀던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두 종류의 직원이 칼빈의 이중 집사 직분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칼빈 연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러한 일치의 근거가 사회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주석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⁵⁸⁾ 이에 대해 엘지 맥키(Elsie McKee)는 로마서 12:8에 나타난 칼빈의 이중적 집사직에 대한 주장은 사도행전 6:1-6에 나타난 집사의 구호활동과 디모데전서 5:3-13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선정된 여자들을 논리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라는 신학적 평가를 선호한다.⁵⁹⁾

57) CO 10, 23-25; J.K.S. Reid(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64-66; 로버트 킹던, 「칼빈의 집사 직분 이해: 그 기원은 사회적인가 또는 신학적인가?」,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편), 『칼빈과 사회』(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9), 142. 이 글의 원문은 "Calvin's Idea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Carter Linberg(ed.), *Piety, Politics, and Ethics: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eorge Wolfgang Forrell*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4), 167-80에 실려 있다; 제나인 E.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편), 『칼빈과 사회』, 174.

58)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27-128, 각주 36에는 로버트 킹던(Robert Kingdon), 리드(J. K. S. Reid)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견해는 칼빈의 이중적 집사 직분이 주석적/신학적 영향보다는 1535년에 설립된 구빈원에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칼빈의 롬 12:8의 주석에 드러난 이중적 집사 직분이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석적/신학적 문제라는 주장으로는 McKee, 198-199를 참고할 것.

59)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99-200.

5. 제네바의 구호활동

5.1. 구빈원

종교개혁 이전에 제네바 시에는 이미 7개의 구빈원과 '연옥의 영혼을 위한 구호소'(Pyssis Omnium Purgatorii, Box for All Souls in Purgatory)라는 기관이 있었다.⁶⁰⁾ 종교개혁이 제네바에서 일어나게 되자 이 구빈원들과 '구호소'가 통합되어 일종의 종합 구빈원(General Hospital)⁶¹⁾이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인 1535년 11월 29일에 시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구빈원은 시의 구 시가지의 한 가운데 위치한 세인트 클레어(Saint Claire) 수녀회 건물을 사용하여 구호활동을 시작했다.⁶²⁾ 구빈원의 운영은 4명의 '서무관'들과 1명의 '오스피탈레'에게 일임되었다. 서무관들은 시 정부의 통치기관에 해당되는 '소위원회'(the Small Committee)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부유한 상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 이들도 시 위원회의 위원들이었지만 선출과정에 있어서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목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정되었다.⁶³⁾ 이들은 구빈원의 운영과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매 주일 이른 아침에 회의를 가졌다. 4명의 서무관들 중 1명은 재정을 담당하였지만 칼빈은 재정 직무를 따로 돌볼 수 있는 독립된 직책을 원했던 것 같다.⁶⁴⁾ 이들은 구빈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오스피

60) 킹던, "칼빈의 집사 직분 이해", 139f.

61) 이 용어는 종종 '시립병원'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구빈원으로 번역했다. 그 당시 이 기관의 주된 기능은 병자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계와 관련된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구빈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62) 프레드 그레함, 『전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49-150.

63) Robert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56.

64) CO 10, 23; Reid(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64.

탈레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뿐 아니라 구빈원에 머무르는 병자들과 가정에서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가정에서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문제를 야기시킬 때 이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서무관들에게 주어져 있었다.⁶⁵⁾

서무관들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였지만 '오스피탈레'는 구빈원의 일선 행정책임자로서 병원의 일상적(daily)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구빈원 건물 내에 거주했으며 거기에 머무르는 수십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뿐 아니라 시내에 거주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제네바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숙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오스피탈레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구빈원에 속한 땅을 경작하도록 했으며 그의 아내는 요리사들을 동원하여 빵을 굽고 와인을 만드는 일을 맡겼다. 또한 구빈원에 내주하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상거래를 위한 도제 훈련도 포함되었다.⁶⁶⁾ 의료활동을 위해서 구빈원 내에 상주하는 의사와 약사들을 감독하는 것도 또한 오스피탈레의 몫이었다. 아울러 영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기도 하였는데 1550년부터 목사 또한 구빈원 내에 상주하기에 이르렀다.⁶⁷⁾ 또한 구빈원내에 종들을 두어 허드레 일을 맡도록 하였다. 매주 한 번씩 가장이 질병에 걸려서 일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방문하고 음식물을 전달하였다.

5.2. 프랑스 기금: 부르스 프랑슈이즈(Bourse francaise)

65)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A: Pickwick Press, 1983), 124.

66) 윌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에 관한 연구」, 161-62.

67)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25.

칼빈이 목회하였던 제네바 시의 특징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한 도시 인구 수의 증가이었다. 1536년에 제네바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제네바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수도가 되었다. '첫 번째 피난'이라고 불리는 기간(1550-1560년) 동안에 평범한 성벽 도시이었던 제네바시의 인구는 1만 3천명에서 2만 명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⁶⁸⁾ 이러한 증가는 시 의원들을 긴장시켰는데 그 이유는 시의 구빈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체계가 이러한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1545년 6월 15일 시 의회는 모든 가난한 외국인들을 제네바로부터 추방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위기가 해결되었다. 왜냐하면 헤노의 다비드 뷔장통(David Busanton of Hainault)이 칼빈이 참석한 임종 침상에서 유언을 통해서 2천 에쿠스라는 거액의 기금을 제네바의 피난민들을 위해 회사했기 때문이었다. 뷔장통의 회사금은 피난민들을 위한 제네바 기금의 시작으로 간주된다.⁶⁹⁾ 이 복지기금에는 칼빈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 이 기금은 제네바 시의 목사들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1549년부터 프랑스 이민자들 가운데 부유한 집사 관리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기금은 처음부터 종교적 이유로 개신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종교전쟁(the Wars of Religion, 1562-1598)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의 많은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 목사들이 제네바로 피난하였다.⁷⁰⁾ 1568년에 프랑스 개신교 목사들은 15일 이내로 나라를 떠

68) 윌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4.

69) Michel Roset, *Les chronique de Geneve*, ed. Henri Fazy (Geneve: Georg Libraires, 1894), 309. 윌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5.

70) 이 전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obert M. Kingdon, *Geneva and the Coming of the Wars of Religion in France, 1555-1563* (Geneve: Droz, 2007).

나도록 명령을 받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제네바에 의복과 양식 없이 도착하여 이 기금의 도움을 받았다.⁷¹⁾

이 기금은 프랑스 피난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피난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금의 이러한 목적과 일부 피난민들이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영국을 포함한 먼 외국의 개신교회들도 이 기금의 모금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개신교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은 피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던 것이다. 기부자들 중에는 부유한 이민자나 피난민들이 적지 않았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칼빈의 고향 느와용(Noyon)에서 시장을 지냈던 로랑 드 노르망디(Laurent de Normandie)이었다. 그는 1548년에 제네바로 피신하였는데 출판업자로 활동하였으며 개신교 서적 행상인들을 프랑스로 보내기도 하였다.⁷²⁾

1550년대에 들면서 제네바로 들어오는 피난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프랑스 기금은 그 규모에 있어서 크게 확대되었다. 기부자들은 주로 유언을 통해 유산을 기부하였는데 그 총액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프랑스 출신의 피난민들이었다. 피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갤리선⁷³⁾에서 노예 노릇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 기금의 관리자들은 이들에게 담요, 이불, 침대, 요리기구, 성경 등을 제공하였다. 이 기금은 이러한 피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는 거처, 의료, 직업 재훈

71)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caise* (Selingsgrove: Susquehanna Univ. Press, 1989), 135-136.

72) 윌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6.

73)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를 가리킨다.

런, 식량 구입비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프랑스 기금에서 도움을 받은 후에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이 기금에 기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선조인 디디에 루소(Didier Rousseau)도 이에 포함된다. 디디에는 거주지 마련을 위해 1551년 4월 6일 기금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이를 기억하고 1570년 4월 자신의 유언장에 회사금을 남겼다.⁷⁴⁾ 그러나 이 기금의 후원이 프랑스 출신 피난민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553년 8월 18일, 프랑스 기금은 4 플로린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한 유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⁷⁵⁾

프랑스 기금은 기부금의 액수가 늘어나면서 1559년경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프랑스로 개신교 서적을 보내고 목사를 보내는 선교적 차원의 활동까지 담당하기에 이른다.⁷⁶⁾ 비록 이러한 선교적 활동이 프랑스 기금의 주된 활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적(ancillary) 활동이었지만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이 활동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후원되었고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반증에 해당된다.⁷⁷⁾ 이런 이유에서 제나인 올슨(Jeannine Olson)은 이러한 국제적 활동이 프랑스 기금의 가장 놀라운 활동이었다고 지적한다.⁷⁸⁾ 그러나 이러한 선교적 활동은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는 제네바 시 의회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선교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으며 단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용되었는가를 그 상황이 자세하게 드러나서 실제로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74)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8.

75) 상계서, 166.

76) 상계서, 172.

77)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57.

78)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50.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기금의 관리를 맡은 집사들은 이러한 선교적 활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서적 행상인들을 통해 성경, 교리문답서, 그리고 시편 찬송가(Psalter)를 프랑스로 보내었는데 파견된 목사들과 더불어 이는 프랑스 개신교회의 기초가 되었다.⁷⁹⁾

6. 나가는 말

본 논문을 통해서 칼빈이 이해하고 실행한 구호활동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칼빈은 중세교회가 잘못된 기독교론과 교회론에 근거하여 부를 교회의 모습으로 오해하고 이를 추구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녔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도의 교제에 근거한 구호활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호활동을 통해서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사회에서 확립되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칼빈에게 구호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회론적 요소는 집사직이었다. 중세교회가 집사직을 사제직을 보좌하면서 더 높은 직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이를 경시하는 경향을 지닌 것을 칼빈은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는 집사직의 주된 임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구호활동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지만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와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특히 칼빈은 강조하였다. 이러한 집사직에 대한 이해는 칼빈의 독특한 이중 집사 직분 이해

79)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56, 58-59, 18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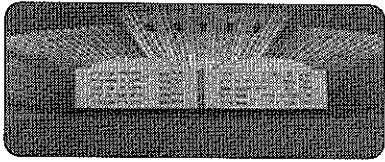
로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집사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첫째, 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으며 둘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실제로 보살피고 돌보는 집사로 나뉘었다. 후자에는 여자들도 포함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독특하다.

이러한 이중 집사 직분은 그 당시 제네바의 구빈원의 인적 구성과도 일치한다. 서무관들(procurators)과 오스피탈레(hospitaller)로 나뉘는 구빈원의 직원 구성에는 이중 집사 직분에 대한 칼빈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의 이중 집사 직분 이해가 그가 제네바에 오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구빈원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또는 순수한 주석적 견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학문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구빈원외에 제네바에서 시행되었던 디아코니아의 하나로서 '부어스 프랑세이즈'(Bourse Francaise)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기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구빈원과는 달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적 기금 제도(private fund)이었다. 프랑스 기금의 주된 목적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제네바로 온 피난민들을 돕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왔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해 자립한 사람들이 후에 실제로 이 기부금의 후원자가 되는 훌륭한 본 모습을 남겼다. 피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신교회가 박해받던 프랑스에 성경, 교리문답서, 그리고 시편찬송가를 비밀리에 보내어서 개신교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활동이었음이 분명하다. 칼빈을 포함한 제네바의 프랑스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프랑스에

박해받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이러한 선교적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특히 프랑스 종교전쟁 기간을 전후하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북 디아코니아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된다. 첫째,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교회 및 사회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칼빈은 구호활동을 위해서 제네바 시민들을 설득함에 필수적인 기본적 교리적 가르침을 제공하였다. 이는 디아코니아의 구체적 활동에 앞서서 그 필요성을 교리적으로 먼저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아코니아를 평신도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사직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 기금을 통해서 피난민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립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기부금의 기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돕고 피난민들과 새터민들을 돕는 이슈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실천적인 사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프랑스 기금이 위험을 감수하고 프랑스를 향하여 선교적 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일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결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로부터 어떤 통찰력(insight)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지혜를 동반한 열정으로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대북 NGO 활동에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칼빈과 그의 디아코니아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판단된다.



개혁신학의 특성과 한국교회

*The Characteristics of Reformed Theology
and Korean Church*

이환봉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 1. 서론 ※162
- 2. 개혁신학의 특성 ※163
 - 2.1.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167
 - 2.2.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169
 - 2.3. "오직 은혜로"(sola gratia) ※171
 - 2.4.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172
 - 2.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175
- 3. 한국 개혁신학의 현주소 ※177
 - 3.1.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179
 - 3.2.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181
 - 3.3. "오직 은혜로"(sola gratia) ※184
 - 3.4.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186
 - 3.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187
- 4. 결론: 한국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실천적 과제 ※191